

**보도자료****2012년 2월 21일(화)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전파기반팀 전영수 팀장(☎750-2230)  
전파기반팀 임재덕 사무관(☎750-2244) lim@kcc.go.kr**방통위,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이내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나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도에 시행한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는 ①주거지 주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과 ②전기장판 등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실제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주거지 주변 총 5,552국의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무선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측정 대상 무선국수의 98%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1/10 미만으로 측정되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전제품의 경우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등 총 36개 품목의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자파 기준대비 1/10 ~ 1/100,000 수준으로 측정되어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전기장판의 경우 기준대비 1/60 미만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다만, 전자레인지의 우측면에서 다른 가전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측정되었다고 밝혔다. 전자레인지 조리실에 쏘이는 2.4GHz의 전자파가 누출되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전자레인지 우측면에 위치한 고압의 변압기에서 60Hz의 자기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거리를 두고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전자레인지 작동 시 30cm 이상 떨어져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파 인체 영향,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 관련 제도 및 가전제품의 올바른 사용 습관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용 소책자 <생활 속의 전자파>를 제작·배포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이후 전자파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자파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도 종합대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붙임 : 홍보용 소책자 <생활 속의 전자파>